2008 광주김치축제 개막

15일 개막된 '2008 광주김치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김치오감박물관'과 해설이 있는 '김치담그기체험관'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인기 몰이에 나섰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내 기획전시실에 개설된 김치오감박물관은 '김치는 문화다'라는 축제 주제에 걸맞게 단순한 전시가 아닌 체험을 통해 김치문화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15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일대에서 펼쳐진 광주김치축제 개막식 직후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김치오감박물관'을 찾아 당근 등 갖가지 야채로 만든 악기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치문화, 오감으로 즐기세요

〈五感〉

오감박물관 등서 김치의 역사·과학·문화 체험

오늘 '스타와 함께 사랑나눔 김치 담그기' 행사

느림과 숙성으로 기다림의 '맛'을 빚는 김치와 그 속에 깃든 시민들의 생활과 문화, 과학과 역사를 감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8개 섹션의 전시를 마련했다.

'김치는 생활이다'라는 주제의 인트로 영상을 시작으로, 김치와 광주김치축제의 역사를 담은 '시간을 담은 맛'을 지나면 무, 당근, 파 등 갖가지 김치재료로 악기를 만들어 연주를 선보이는 '다(多)감 상상방'이 펼쳐진다. 이 곳에는 모양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준비된 빨강, 노랑, 초록, 자주, 흰색 등 오색 야채를 먹어보고 그 색깔과 맛을 상상해보는 '오색 맛 방'도 개설됐다.

'맛의 예술, 광주 김치'에는 작가로 참여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들의 김치 이야기를 담았고, '광주에서 만나는 팔도김치' 코너에선 한국음식관광협회 광주지회 회원들이 팔도를 대표하는 22가지의 다양한 김치를 자연·문화적 특성과 함께 소개한다.

또 김치 제조 과정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 '숨은 과학 찾기'와 시민들이 자신만의 김치요리비법을 소개한 '나만의 김치'도 자리를 함께 했다. 관람객들이 전시를 체험한 뒤 소감을 남길 수 있도록 '김치는 □□다'코너도 준비했다.

해설이 있는 '김치담그기체험관'은 관람객이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의 김치 담그는 시연을 지켜본 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김치축제는 예년에 비해 체험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 전시 콘텐츠를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축제의 전국화와 차별화를 위해 민간중심의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시립민속박물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시의회 의장을 비롯 사사키 일본 센다이시 의원, 나흐만 인도네시아 메단시 경제국장, '광주·전남 방문의 해' 홍보대사인 탤런트 임현식씨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 윤진철 명창은 창작판소리 단가 '김치가'를 선보였다.

개막식에 이어 김치오감박물관 개관식과 자원봉사자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 사랑나눔김치담그기' 행사가 펼쳐졌다.

축제 둘째날인 16일 오후 1시에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장에서 개그우먼 김미화씨와 배우 박철민씨, 이주여성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하는 '스타 김치매니아와 함께하는 사랑나눔김치담그기' 행사가 열린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지하철 운영 적자 줄이려면 1호선 연장·2호선 조기 건설해야"

연임된 오행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광주시 산하 공기업 사장 가운데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오행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15일 광주지하철의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호선 연장선 및 2호선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지하철 건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와 운영비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하지만 운영적자를 줄이려면 1호선 연장선과 2호선 조기 건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철은 대량의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이자 공익을 위한 공공재"라며 "현재의 광주 지하철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에 있고, 1호선 연장선 및 2호선 순환선이 완성될 때 대중교통으로서 140만 시민의 진정한 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지하철은 지난해 256억원 가량의 운영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적자폭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 사장은 그 원인으로 1인당 수송 원가(4천200원)에 크게 못미치는 비현실적인 운임(1천원) 체계와 1호선 단선 체계에 따른 승객 유치의 한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수송인원 증가 등을 꼽았다.

오 사장은 "서민들을 위해 요금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 세계 50여개의 지하철 운영기관 중 흑자를 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지하철 추가 건설을 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교통혼잡비용 완화, 친환경적인 선진국형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편향된 지구별 교통편의 불균형 해소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교통망을 확충, 승객수요를 창출하고 단순 업무의 외주화 확대, 수익사업의 다각화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개통 이후 1천200회가 넘게 펼쳐온 전시·공연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 광주 지하철이 지역 문화발전 소이자 문화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심폐소생 배우고 비보이 공연 즐기고

오늘부터 3일간 빛고을 119안전체험 한마당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체험하세요'

'2008 빛고을 119안전체험 한마당'이 16일부터 사흘동안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주최로 올해로 여덟번째인 이 행사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광주·전남지역 13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해 25개 부스에서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화재경보에서부터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연기 탈출 등 피난대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을 비롯 승강기·가스·교통안전까지 코스별로 운영된다.

또 비보이 및 보컬공연과 뉴스진행 및 블루스크린 체험, 원어민과의 영어회화 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및 네일아트, 솜사탕 및 막대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특히 16일 오후에는 특별행사로 '어린이 불조심 그림그리기대회'가 열리고, 17일 오전에는 '가족과 함께 케이크 만들기' 행사가 펼쳐진다.

개막식은 17일 오전 11시 시청 야외음악당 행사장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소방공무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외국인 고충 상담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서유교)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청사 대강당에서 외국인 정부합동고충상담회를 개최한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이번 외국인 고충상담회는 법무부가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와 광주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상담 대상은 광주·전남 지역에 체류 및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로 결혼, 임금 체불, 부동산 거래, 금전차용 등 생활전반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과 건강관리협회,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의 무료진료, 건강검진도 병행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